

자료제공 : 2024. 1. 8.(월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

도로관리과장

김만호

02-2133-815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2쪽

도로관리팀장

원영구

02-2133-8152

9일(화) 아침~밤사이 최대 8cm 많은 눈예보...서울시, 제설 총력대응

- 기상청, 9일(화) 아침(06시)~밤(24시) 3~8cm 눈 예보...대설예비특보 발표
- 8일(월) 23시 제설 1단계 발령...본격 강설 전인 9일(화) 08시 2단계로 격상
- ▲인력 8,488명 ▲장비 1,168대 동원...제설장비 전진 배치, 제설제 사전살포
- 9일(화)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배차시간 30분 연장운영...교통혼잡에 대응
- 출퇴근길 차량정체 및 눈길 미끄럼 대비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안전 당부

- 기상청에서 1.9일(화) 아침(06시)부터 밤(24시)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~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, 1.8(월) 16시 대설예비특보(06시~12시 발효)를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는 제설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.
- 1.8(월) 23시부터 선제적으로 제설1단계를 발령하고, 본격 강설이 예상되는 1.9(화) 08시에 제설 2단계로 상향하여 서울시, 자치구, 유관기관 등이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 강설에 대비한다.
-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해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장비 전진배치 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고, 인력 8,488명과 제설장비 1,168대를 투입하는 등 강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.

- 골목길, 급경사지에 비치돼 있는 제설함에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,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내 집 앞,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동참도 당부했다.

- 또한 제설2단계 발령에 따라 지하철1~8호선·신림선, 시내버스 전 노선 모두 1.9(화)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한다.
 - ※ 9호선, 우이신설선은 비상대기열차 운용하여 비상시 신속 투입
 - 출근 집중배차시간 : (평소) 07시~09시 (연장) 07시~09시 30분
 - 퇴근 집중배차시간 : (평소) 18시~20시 (연장) 18시~20시 30분

- 서울시는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, 눈길 미끄러움에 대비하여 차량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낙상사고 등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.

-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“서울시는 이번 강설에 대비하여 가용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할 것”이라며, “시민들께서는 출퇴근길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, 보행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장갑을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